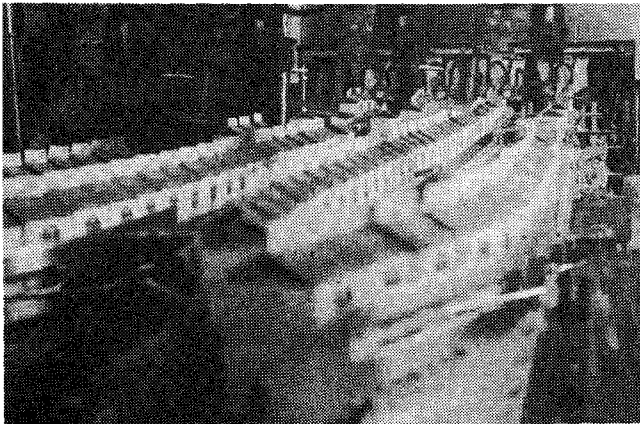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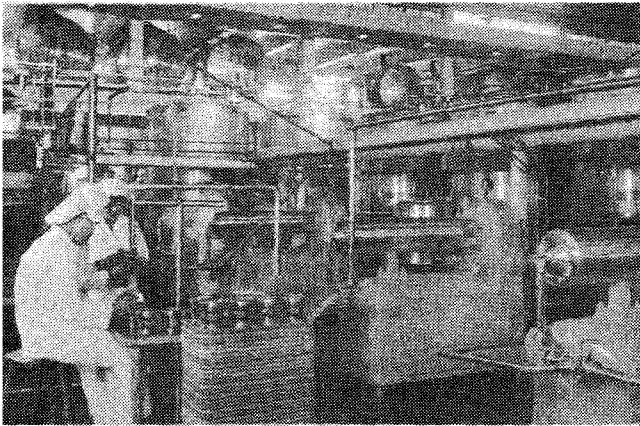


우리나라 유가공업의 현황과 전망

상무이사 장 성 중

(한국유가공협회)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1902년에 프랑스 사람 쇼트씨가 신촌역 부근에서 홀스타인종 젖소 20두를 들여와서 목장을 시작한 것이 근대 낙농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의 우유소비는 외국인 가정에 배달되는 극히 한정된 소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소위 우유가 공장을 거쳐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1937년도에 현재의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전신인 경성동업조합이 현재의 정동교회 앞에서 문을 연 때부터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 때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유가공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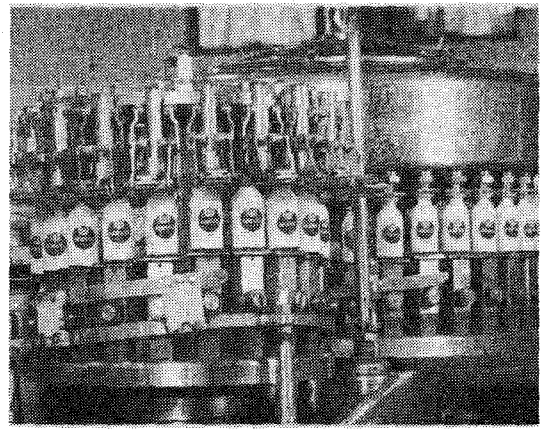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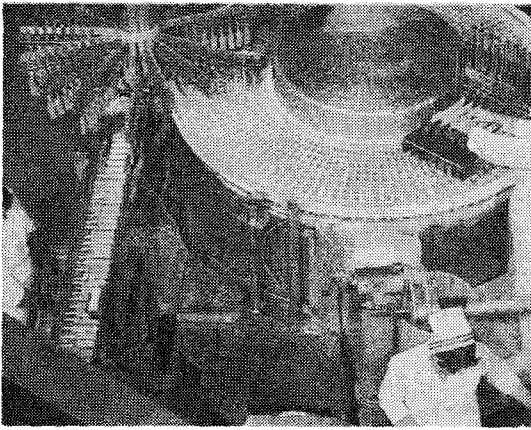
그러나 면면히 이어오던 우리나라의 낙농 및 유가공업은 해방 이후의 혼란기와 6.25사변을 계기로 거의 재기불능 상태에까지 도달하여 1954년도에는 젖소두수가 289두까지 줄어든 상태였으나 다행히 62년도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낙농 및 유가공업이 포함되면서부터 낙농 및 유가공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매년 젖소의 지속적인 도입은 낙농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우유의 생산비에 있어서도 62년 이전에는 가공시설이 없어 우유가 소비되지 않으면 버리는 수 밖에 없어 일주일에도 2~3 회씩 우유를 수유하지 않았던 적이 많았으나 '62년도에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연유시설을 처음 중랑교공장에 설치함으로써 버릴 수 밖에 없었던 우유의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즉 시유(市乳)만 생산하여 판매하고 남은 우유는 버리거나 송아지 사료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우유처리업에서 잉여우유를 장기보관함으로써 우유의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유가공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65년도에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분유시설을 설치하여 아기분유를 생산하고 '66년도에 남양유업(주)에서 남양분유를 생산하면서부터 낙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여러번 어려운 고비가 있었으나 그 때마다 유업체와 낙농가가 합심노력하여 어려운 난관을 타개해 나감으로써 현재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낙농과 유업의 현황을 살펴볼 때 '83년도 말 현재 젖소사육호수가 3만여호, 사육두수도 28만여두에 이르고 우유처리공장 공장수도 45개에 달하며 국민 1인당 소비량도 연간 18kg를 넘어섰고(표 1 참조), 낙농 및 유가공업은 모든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발전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표 1. 우리나라의 낙농현황

연도별	낙농가 호 수	젖 소 사육두수	연 간 우유생산량	납유량	연간1인당 소비량
1944		2,661두			
1950		780 "			
1954		289 "			
1962	676호	2,406 "	2,647톤	1,520톤	0.1kg
1965	1,210	6,612 "	10,685 "	8,851 "	0.3kg
1970	3,126 "	23,624 "	51,888 "	47,706 "	1.4kg
1975	9,415 "	85,542 "	162,926 "	160,338 "	4.6kg
1980	17,666 "	179,841 "	457,580 "	452,327 "	11.0kg
1983	29,537 "	274,783 "	716,384 "	712,206 "	18.2 "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유가공업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았으나 앞으로 장기적인 우유의 수급상황을 검토해 볼 때 우유를 생산만 하면 소비될 수 있다고 안이한 생각만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지난 10년간의 평균 우유 소비증가율은 21.7%가 되지만 지난 5년간의 소비증가율만 볼 때에는 17.8%로서 소비물량의 총량은 증가하나 소비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경향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공업의 발전과 우유소비증대를 위한 몇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유가공업의 발전이 양적 발전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재삼 반성해 볼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료우유의 품질향상은 질적향상에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원료우유의 품질향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원료우유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젖소의 사양관리에서부터 유방염의 방제, 여름철 무더위에 대한 대책, 원유의 위생적 처리 등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목장의 냉각시설 의무화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원유의 신속한 품질향상을 위하여는 유가등급제 실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며 현재의 유대지급 방법에서 유고형분에 의한 유대지급 방법과 세균수에 의한 유대지급 방법을 병용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낙농 및 유가공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학교급식의 확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민학교에 있어서 학생수의 약 30%만이 우유를 먹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우유급식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국민학교 학생의 99% 이상이 학교급식에 대하여 우유를 먹고 있으며 중학교도 80% 이상이 우유를 먹고 있는 실정

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발전의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쌀밥 위주로 되어 있어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먹는 습관을 들이지 않을 경우 어른이 되어서는 우유를 마시지 않게 되므로 학교급식의 확대는 우유소비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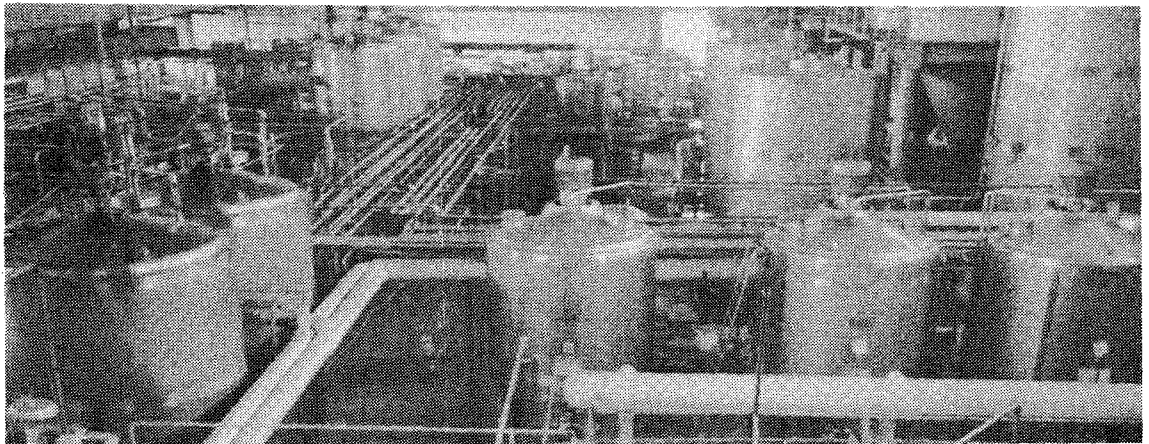
세째로, 우유 소비확대에 암적인 존재인 유제품의 특별소비세가 하루 속히 철폐되어야겠다는 것이다.

어떠한 동기에서 아이스크림과 요구르트가 특별소비세 품목에 삽입되었는지 모르겠으나 특

별소비세의 근본취지로 볼 때 아이스크림과 요구르트가 특별소비세 품목이라는 것은 년센스이며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특별소비세의 과세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이스크림의 질이 점점 떨어진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우유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가격이 비싸지므로 우유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의 생산은 기피하고 대신 우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 중 “바” 종류나 “콘” 종류는 거의 전부 우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아이스크림이며 매년 아이스크림에 우유를 사용하는 양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앞으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의 올림픽을 맞이하여 외국사람들에게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이스크림이라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유제품의 특별소비세는 하루속히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로, 지속적인 낙농 및 유가공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유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져야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1년에 소비하는 우유는 20kg 정도로서 일본의 65kg이나 구

라과 지역의 200~300kg 선에 비하여 발전의 소지가 많으나 시유 위주로만은 지속적인 소비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유 이외의 다양한 유제품 생산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우유소비의 증가율이 높을 경우 그 한계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상대적으로 빨라지게 되므로 88년 올림픽 이전에 유제품의 다양화를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유가공업의 발전과 우유소비 증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유가공업의 발전전망은 사회, 경제, 정치적 요소와 무관한 관계가 아니므로 한 마디로 말할 수 없으나 위에서 열거한 요인들이 해결되고 유제품의 수입규제가 계속되는 한 적어도 1990년도까지의 유가공업 발전전망은 밝다고 보겠다